



미 증시, 유럽발 호재, 비관론 후퇴 등으로 상승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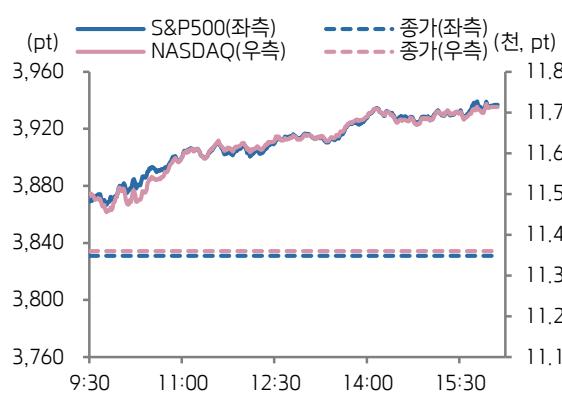
19일(화) 미국 증시는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 재개, ECB의 50bp 인상 가능성 유로화 강세 등 유럽발 호재 속 2분기 양호한 실적시즌 전망 부각 등이 위험선호심리를 개선시키면서 상승 마감(다우 +2.43%, S&P500 +2.76%, 나스닥 +3.11%, 러셀 2000 +3.5%).

러시아는 정기점검을 위해 가동이 중단되었던 노드스트림 1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을 21일부터 재개, 푸틴 대통령은 '계약을 완전 이행'할 것이라고 밝힘. 한편, EU는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비해 에너지 수입원을 다변화하며 대응, 2027년까지 아제르바이잔 천연가스 수입을 기존 두배 수준까지 늘릴 것이라고 언급.

한편 유럽 6월 소비자물가지수 최종치는 전년동기 대비 8.6%(예상치 8.6%, 전월치 7.6%), 전월대비로는 0.8%(예상치 0.8%, 전월치 0.8%) 기록하며 전월치 상회, 역사적 최고치 기록.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3.7%(예상치 3.7%, 전월치 3.5%)로 발표. 내일 개최되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상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었지만, 물가지수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 가속 대응을 위해 50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며 유로화는 강세, 달러는 약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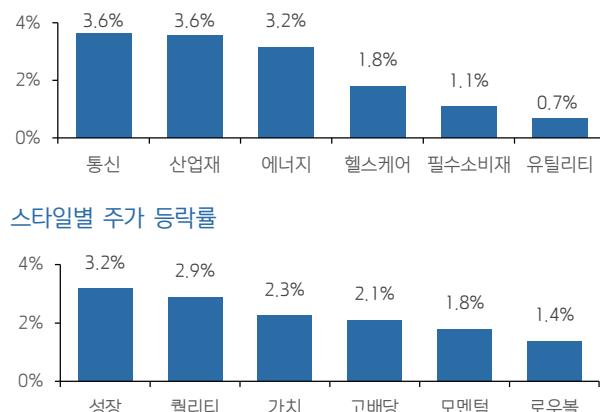
업종별로 전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통신(+3.6%), 산업재(+3.6%), 에너지(+3.2%)의 상승폭이 가장 커고, 유ти리티(+0.7%), 필수소비재(+1.1%), 헬스케어(+1.8%) 업종의 상승폭이 가장 작았음. 전일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5.6%)는 2분기 글로벌 신규 구독자 수가 100만명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예상치 200만명 감소 대비 양호한 수치라는 점에 시장은 주목, 시간외로 8%대 상승. 이와 더불어 전일 미 상원에서 반도체 지원 정책을 표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 영향으로 엔비디아(+5.53%), 마이크론(+3.23%) 등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나스닥 상승을 주도.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936.69	+2.76%	USD/KRW	1,313.52	-0.28%
NASDAQ	11,713.15	+3.11%	달러 지수	106.68	-0.64%
다우	31,827.05	+2.43%	EUR/USD	1.02	+0.02%
VIX	24.50	-3.16%	USD/CNH	6.74	-0.01%
러셀 2000	1,799.32	+3.5%	USD/JPY	138.18	-0.01%
필라. 반도체	2,803.14	+4.61%	채권시장		
다우 운송	13,796.65	+3.88%	국고채 3년	3.185	-3.5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245	-3.5bp
Eurostoxx50	3,587.44	+2.15%	미국 국채 2년	3.237	+6.3bp
MSCI 전세계 지수	612.33	+2.09%	미국 국채 10년	3.021	+3.5bp
MSCI DM 지수	2,567.68	-0.04%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980.48	+1.94%	WTI	104.22	+1.58%
MSCI 한국 ETF	58.69	+2.46%	금	1728.1	-0.0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2.46%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65%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1.35%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5.1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8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 원/달러 환율 급락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가능성
-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급등(+4.6%)이 국내 반도체주 주가에 미치는 영향
- 넷플릭스 시간외 주가 급등으로 인한 관련 콘텐츠 및 성장주들의 주가 변화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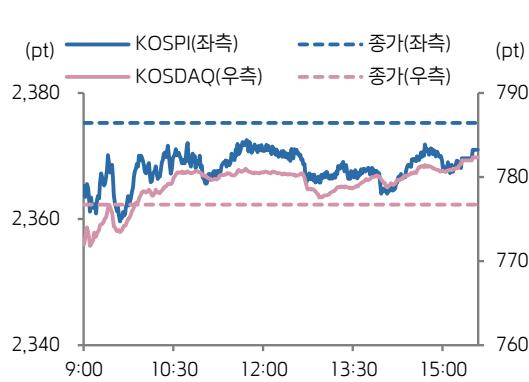
그동안 유로존은 우크라이나 사태발 에너지 위기와 맞물리면서 미국과 함께 전세계 침체 불안을 유발해온 상황. 이 때문에 유로화는 급격히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화 초강세를 연출하게 만들었으나, 현재는 유로화의 분위기 전환이 감지되고 있는 모습. 21 일 ECB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25bp 인상이 아닌 50bp 인상으로 연준과 정책 스텝을 어느정도 맞춰야 한다는 쪽으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함에 따라, 유로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

유로존의 미국에 비해 경기 편더멘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성장과 물가 안정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자체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경제와 금융시장이 종속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ECB 또한 물가 및 환율 안정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 더 나아가, EU에서 대 러시아 제재를 일부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서는 유럽 내 공급의 약 30%대를 담당하는 노르트스트림 1 가스관을 21 일 정기점검 종료 후 재가동 시키기로 결정했다는 점도 눈에 띠는 부분.. 양 대륙의 이 같은 조치가 직접적인 조기 휴전의 신호탄이라고 보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유럽을 둘러싼 경제 및 에너지 위기가 추가 악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한편, 연초 이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달성 연이은 실패, 침체 리스크 점증, 주식시장 악세장 진입 등 악재가 누적되고 있다보니 (최근 반등하긴 했지만) 투자자들의 심리는 비관론 우위에 있는 상황. 7 월 BofA 의 글로벌 기관 서베이에서도 현재 체감하고 있는 위험 수준이 '08 년 10 월 금융위기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인 현금 보유 비중은 6.1%로 금융위기, 판데믹을 넘어서 '01 년 10 닷컴버블 당시 급으로 높아진 것으로 확인. 향후에도 7 월 FOMC, 빅테크주들의 실적 등 대형 이벤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긴 하나, 현재의 비관론은 여전히 극단에 놀려 있는 만큼 현금비중 확대 전략은 후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기준의 관점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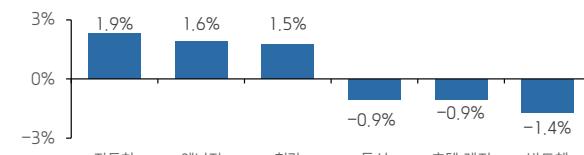
전일 애플의 긴축 경영 악재 등으로 혼재된 모습을 보였던 국내 증시(-0.2%, +0.7%)는 금일 가스 공급, 유로화 강세 등 유럽발 호재,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4.6%) 급등, 역외 원/달러 환율 급락(-8 원) 등에 힘입어 반도체 등 대형주들에 대한 외국인 수급을 호전시키면서 강세를 보일 전망. 또한 넷플릭스의 경우, 지난 1분기 실적시즌 당시 가입자수 쇼크로 35%대의 폭락세를 연출하기도 했지만, 금일 장 마감 후 발표한 2 분기 신규 가입수 감소폭이 100 만명으로 시장 컨센(200 만명 감소)을 대폭 하회했다는 소식으로 시간외에서 7%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이를 감안 시 관련 콘텐츠주를 포함한 성장주들의 투자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기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과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짰습니다.	